

碩士學位論文

學校運營委員會 委員들의 意識分析

- 學校運營委員會 改善方向과 關聯하여 -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裕 浩

2003 年 8 月

學校運營委員會 委員들의 意識分析

- 學校運營委員會 改善方向과 關聯하여 -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 年 5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提出者 梁 裕 浩

梁裕浩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 年 7 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學校運營委員會 委員들의 意識分析

- 學校運營委員會 改善方向과 關聯하여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梁 裕 浩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 위원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수준, 위원회를 보는 인식, 참여태도와 참여의식,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등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위원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를 시·군 지역별로 비율에 맞게 무선 표집하여 대상학교의 학부모·교원·지역위원 400명 전원에게 질문지를 발송, 회수된 301부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Frequency)와 백분율(Percent)을 통해 경향을 알아보고,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에서, 설치 목적과 기능, 법률적·행정적인 일반적 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폭넓은 지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식 함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계획과 시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에서,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62.3%가 타의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구성집단 모두가 적극 참여하려는 분위기 조성 방안이 필요하며, 위원들이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49.3%에 불과하여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시설 등 여건조성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에서, 응답자의 33.5%가 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학교 또는 교사의 권한침해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운영에 있어 교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원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운영미숙으로 나타나 교장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고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지역위원은 교육전문가나 재력이 보다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들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운영에의 과거 관행을 견제해야 하며, 단위학교는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1
II. 이론적 배경	4
1.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4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3. 선행연구의 검토	11
III. 연구 방법	14
1. 조사도구	14
2. 표 집	15
3. 자료의 처리	17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8
1. 운영위원들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지식	18
2. 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20
3. 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	26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35
V. 결론 및 제언	45
※ 참고문헌	50
※ ABSTRACT	53
※ 부 록	56

표 목 차

〈表 Ⅲ-1〉 질문지의 영역별 구성내역	14
〈表 Ⅲ-2〉 조사대상 학교 현황	15
〈表 Ⅲ-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表 Ⅳ-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한 지식	18
〈表 Ⅳ-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지식	19
〈表 Ⅳ-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	20
〈表 Ⅳ-4〉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활동 성과	21
〈表 Ⅳ-5〉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만족도	22
〈表 Ⅳ-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의 교육활동 반영 정도	23
〈表 Ⅳ-7〉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학력향상 영향 정도	24
〈表 Ⅳ-8〉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또는 교사 권한 침해 정도	25
〈表 Ⅳ-9〉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지원 정도	26
〈表 Ⅳ-10〉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동기	27
〈表 Ⅳ-11〉 학교운영위원회 재참여 및 지속 여부	28
〈表 Ⅳ-1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정도	29
〈表 Ⅳ-13〉 심의사항 중 관심분야	30
〈表 Ⅳ-14〉 바람직한 의견 관철노력 정도	31
〈表 Ⅳ-15〉 심의 안건 상정 정도	32
〈表 Ⅳ-16〉 바람직한 교육활동 의견 개선 의사	33
〈表 Ⅳ-17〉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 정도	33
〈表 Ⅳ-18〉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의논 및 건의 대상	34
〈表 Ⅳ-19〉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책임운영 가능성	35
〈表 Ⅳ-20〉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36
〈表 Ⅳ-21〉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이유	37

〈表 IV-22〉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38
〈表 IV-23〉 활성화를 위한 우선개혁 대상	39
〈表 IV-24〉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이 갖추어야할 소양	40
〈表 IV-25〉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위원의 성향	41
〈表 IV-26〉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성향	42
〈表 IV-27〉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성격	43
〈表 IV-28〉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우선 사항	44



I. 研究目的과 研究問題

한국 근대교육의 역사에서 1894년 갑오개혁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구한말 왕조체제하의 교육으로부터 일본 식민지하의 식민교육, 미군정 교육, 건국후의 교육 등 국제정세 및 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이 변천되어왔으며, 21세기가 다원화,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도 시대상황에 맞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운영체제에 있어서도 분권화,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5. 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과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운영에서 지역 및 단위학교별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 체제¹⁾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교육개혁안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종전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됨으로서 자율성이 미약했던 교육활동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 특성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실시의 주체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교육개혁내용의 핵심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 교육사의 민주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급식,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1) 교육부(1995), “- 5. 31 교육개혁방안에 의한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실시 지침,” 『법규소개(제2권)』, 한국교육시설학회, p. 64.

사항 제출권한(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학교 교육활동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경영 및 교육활동의 방향과 학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중심기구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8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년 2학기에 전국 국·공립 355개의 초·중·고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한 후 확대 실시하여 1998학년도에는 전국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00학년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²⁾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한지 7여 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자치에 매우 큰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조직 및 권한, 기능, 위원자격 및 선출, 위원의 자질 및 전문성, 학교경영의 독자성·특수성, 재정확보 등 체제 및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³⁾ 많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의 교육재정을 후원해주는 기존의 육성회와 별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홍보자료가 발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원들이 숙지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는 교육주체들에 의한 자율적 학교경영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권 확보에 매진하는 운영위원들도 생겨나고 있다.⁴⁾ 또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를 구성세력간의 갈등의 장으로 만든다.⁵⁾ 학교운영위원은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등 위상이 높아졌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떠맡기기 예사⁶⁾라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실체에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 교육부(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II』, 사회교육문화사, p. 5.

3) 정일환(199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학 논총(제18집)』, 우리교육학회, p. 100.

4) 손승남(2000), 전계서. p. 86.

5) 문지영(200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제11권)』,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 410.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기능 등 체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집단인 운영위원들의 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집단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지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를 보는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운영에의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은 어떠한가?

넷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



6) 최장명(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 2.

II. 理論的 背景

1.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5. 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그동안 정부의 규제와 통제중심 교육에서 지역 및 단위학교별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자치를 표방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의 5. 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자치의 실천 내용은 종전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운영됨으로서 자율성이 미약했던 교육활동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학교 특성에 알맞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자치를 실행할 기구로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시발점으로서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의 교육자치의 성패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교육자치의 의의와 그 특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치의 의의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법적 기반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

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서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한 민의의 수렴을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며, 이 원리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의 자율성이다. '자율'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다스림' 즉 自治를 뜻한다. 자율의 반대어는 '타율' 또는 '자유방임'으로서 타율은 자신이 아닌 타인 또는 외부의 권위 또는 원리에의 종속을 뜻한다. 또한 '自治'는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다스림'으로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자율과 자치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자율성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 방법, 교재선택 등의 教授에 대한 자율성과 지식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권위 외에 다른 외적 권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이 교육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즉 교육이 지닌 고유한 권한은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스스로의 법칙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의 전문성이다.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보장의 필요성은 교육이 바로 지식을 통해 합리성을 계발하고 자율인으로 길러내는 일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지식교육이 가지는 자율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전문성을 보장받으려면 교사 또는 교육기관이 전문직으로서 그에 걸 맞는 소양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과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선 정파들의 과당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교육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이 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또 정치가 교육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

교원은 특정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가 아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자율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의미로서 어떠한 정치적 개입과 통제도 가해지면 안 되는 교육자치의 한 원리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정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권화와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⁷⁾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라 할 것이다. 일정한 범위의 교육기관 또는 단위학교별로 직접 관계자인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서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교육에 관한 제반정책, 교육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학생선발, 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실정이다. 이는 모든 학부모들의 바램인 일류대학 병 같은 정부차원의 문제와 자치 재정의 문제 등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이나 지역적, 단위학교 차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자치의 특징

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에 의한 자치제도 운영을 의미한다.⁸⁾ 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은 지역주민의 참여

7) 손승남(2000), "교육자치의 본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한독교육학연구(제6권 제2호)』, 한독교육학회, p. 72.

8)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p. 675.

적 경영과 이에 수반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자치제는 주민정신 구현에 있다. 따라서 이의 범주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들의 교육에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교육활동에의 지역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필요성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은 교육의 주권을 가진 학습의 주체로서 모든 교육활동과 교육제도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를 하나의 자연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써 모든 국민에게는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 관계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사가 교육운영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생활 양식의 습득과 바른 성장을 돕는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반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¹⁰⁾

교육자치는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육 소비자로서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하나로써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의 자치에서 책임경영제는 학교중심경영제, 학교자치관리제, 학교자율경영제 등으로 지칭된다. '책임'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담당하여 그 결과에 대한 손실이나 제재를 자기가 떠맡는 일'이라 하고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¹⁾ 따라서 회계책임 등 경영결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합리화는 크게 투명성과 민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9) 경기도교육청(1998), “열린시대 열린학교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98-5)』, pp. 170-171.

10) 이길수(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 8.

11) 한국교육개발원(1994), “학교 경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4-16)』, pp. 39-40.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서나 경영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운영과정 이 확연히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수의 중지를 모아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나 경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학교의 경영에서 자치기구 대표집단의 구성이나 정책수립과정, 경영전략 등 매우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된다.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바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충의를 얻어야 진정한 교육자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의 구축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체를 확립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설치되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성격, 권한과 의무 등 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위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이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도 조례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보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함으로써 국·공·사립을 망라한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

무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라고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적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제2항에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조의 사항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기능)은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과 예·결산의 심의,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및 교과서와 교육자료 선정, 초빙교원의 추천 등 학교의 정책 결정과 운영, 교육활동 등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정규학습시간 내의 교수활동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의 기본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⑫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의 성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다. 다만, 사립학교는 동 사항들에 대해 ‘자문’토록 함으로써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이다.

셋째, 학교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 정책결정 및 경영, 교육활동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이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그 권한과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다.¹²⁾

먼저, 학교운영위원의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요사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

12) 교육부(2000), 전게서, pp. 33-34.

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

셋째, 보고 요구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63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의무를 살펴보면 첫째, 회의 참여의 의무로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함으로써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의무가 있다.

둘째,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은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선행연구로는 이기우(1998), 박종필(2002), 주삼환(1998), 고원철(1999), 강정숙(1997)의 연구¹³⁾ 등 다수가 있으나 본 연

13) 이기우(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0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박종필(2002),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연구 I,” 『초등교육연구(제15권 제1호)』, 한국초등교육학회; 주삼환(1998), “녹연 권순명 박사 화갑기념 논총 :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발전 논총(제19권 제1호)』,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고원철(199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정숙(1997),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

구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연구는 강정숙(1997), 고원철(1999), 손승남(2000), 최장명(1998), 이길수(199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강정숙의 연구(1997)는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참여 방법과 통로 부족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내용을 학교 교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고 제시하였다.

고원철의 연구(1999)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책임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개방적 분위기 조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널리 보급하는 유인책 마련, 교육부 및 교육청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공, 연수자료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운영 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시키는 학부모 전문기구를 두는 방안¹⁵⁾을 제시하였다.

손승남의 연구(2000)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자율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혹은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원들의 주체역량 함양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부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독단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인식변화의 필요성¹⁶⁾을 제시하였다.

최장명의 연구(1998)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참여적, 실천적 자세 함양과 위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연수 기회 확대,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관청이 가지고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 운영 측면에 있어서 학교장은 민주적 사고방식을,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각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성원의

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4) 강정숙(1997), 전게서, pp. 63-67.

15) 고원철(1999), 전게서, p. 86.

16) 손승남(2000), 전게서, pp. 88-91.

의사 반영 노력, 기능에 있어서는 모든 사항을 심의만 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자문·의결 기구화 하는 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¹⁷⁾을 제시하였다.

이길수의 연구(1998)는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구성원들이 숙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부모위원의 소극적인 태도는 본인의 언행이 자녀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해소방안 마련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인 학교장의 개혁의지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¹⁸⁾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의식 부족, 학교장의 인식부족과 독단,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위원들의 참여의식이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연수 기회의 다양화와 확대를 제시하였고, 학교장의 인식부족과 독단의 문제는 학교장 스스로 의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식분석'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가,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7) 최장명(1998), 전계서, pp. 90-91.

18) 이길수(1998), 전계서, pp. 70-72.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문헌을 통하여 교육자치의 의의와 특징,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배경,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관계법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관련 잡지와 신문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계 의견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선행연구자들이 개발 활용한 질문지와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개발하여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통하여 발송·회수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 도구

본 질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 인지도, 참여태도 및 참여 의식,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등 4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表 Ⅲ-1> 와 같다.

<表 Ⅲ-1> 질문지의 영역별 구성내역

영역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	1-3	3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4-9	6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	10-18	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	19-28	10
학교운영위원 기초자료	29-34	6

2. 표 집

본 연구의 조사는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175개 학교(특수학교 2개교 제외)에 대하여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시군 지역별 학교수에 비례하여 35개교(전체 학교수의 20%)를 무선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의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00명 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305부(회수율 76.3%)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분석이 곤란한 질문지 4부를 제외한 301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현황 및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 수는 <表 III-2>와 같다.

<表 III-2> 조사대상 학교 현황

구 분	학교현황				표집대상(학교수)				비 고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제 주 시	27 (5.4%)	13 (2.6%)	13 (2.6%)	53 (30.3%)	6	3	3	12	
서귀포시	16 (3.2%)	7 (1.4%)	6 (1.2%)	29 (16.6%)	3	1	1	5	
북제주군	32 (6.4%)	14 (2.8%)	6 (1.2%)	52 (29.7%)	6	2	1	9	
남제주군	29 (5.8%)	8 (1.6%)	4 (0.8%)	41 (23.4%)	6	2	1	9	
계	104 (59.4%)	42 (24.0%)	29 (16.6%)	175 (100%)	21	8	6	35	전체학교의 20% 표집

※ ()는 도내 전체학교(175개교) 중 차지하는 비율

도내 초·중·고 현황 및 지역별 조사대상 학교는 <表 III-2> 과 같이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 12개교, 서귀포시지역 5개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각각 9개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이며, 질문지 배부 및 회수는 소재지별로는 제주시지역이 150부를 배부하여 97부를 회수(64.7%)하였고, 서귀포시지역은 60부를 배부하여 47부를 회수(78.3%)하였으며, 북제주군은 104부를 배부하여 86부를 회수(82.7%)하였으며, 남제주군 86부를 배부하여 71부를 회

수(82.6%)하여 총 400부를 배부하여 301부를 회수(회수율 75.3%)하였다. 지역별로 볼 때 농촌지역(북제주군·남제주군)이 높고, 도시지역(제주시·서귀포시) 일수록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31부 배부하여 186부를 회수(80.5%), 중학교 98부 배부 70부 회수(71.4%), 고등학교는 71부를 배부하여 45부를 회수(63.4%)하여,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表 Ⅲ-3> 와 같다.

<表 Ⅲ-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222	73.8
	여	79	26.3
연 령 별	20대	0	0
	30대	87	28.9
	40대	141	46.8
	50대 이상	73	24.3
학 력 별	중졸 이하	2	0.7
	고 졸	103	34.2
	대 졸	136	45.2
	대학원졸	60	19.9
소재지별	제주시	97	32.2
	서귀포시	47	15.6
	북제주군	86	28.6
	남제주군	71	23.6
학교급별	초등학교	186	61.8
	중 학교	70	23.3
	고등학교	45	15.0
직 능 별	학부모위원	141	46.8
	교원위원	110	36.5
	지역위원	50	16.6
계		301	100

3. 자료의 처리

조사결과 얻어진 통계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Frequency)와 백분율(Percent)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研究 結果 및 論議

1.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운영에의 법률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한 지식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을 예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33.2%, 약간 알고 있었다 60.4%로 조사응답자의 3분의 1정도는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간 알고 있었다 60.4%, 모르고 있었다 5.9%, 알 필요 없다 0.3%로 66.6%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약간만 알고 있거나 관심 없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 참조>

<表 IV-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한 지식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잘 알고 있었다	74	26	57	33	10	38	50	12	100
	33.3	32.9	30.6	47.1	22.2	26.9	45.4	24.0	33.2
약간 알고 있었다	133	49	112	37	33	90	58	34	182
	59.9	62.0	60.2	52.8	73.3	63.3	52.7	68.0	60.4
모르고 있었다	14	4	16	0	2	13	1	4	18
	6.3	5.0	8.6	0.0	4.4	9.2	0.9	8.0	5.9
알 필요 없다	1	0	1	0	0	0	1	0	1
	0.4	0.0	0.5	0.0	0.0	0.0	0.9	0.0	0.3
df	3		6			6			
X ²	0.553		15.118*			19.009**			
P	.907		.019			.004			

* P < .05 ** P < .01

〈表 IV-1〉에 의하면,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남자위원과 중학교위원, 교원위원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별과 직능별에서 변인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학교급별은 $P < .05$ 수준에서, 직능별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한 지식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29.5%로 나타났으며, 약간 알고 있다 69.4%, 전혀 모른다 1.0%로 모르거나 약간만 알고 있는 경우는 70.4%로 조사응답자 대부분이 기능(심의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 참조〉

〈表 IV-2〉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능에 대한 지식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잘 알고 있다	67	22	55	25	9	31	50	8	89
	30.1	27.8	29.5	35.7	20.0	21.9	45.4	16.0	29.5
약간 알고 있다	154	55	128	45	36	107	60	42	209
	69.3	69.6	68.8	64.2	80.0	75.8	54.5	84.0	69.4
전혀 모른다	1	2	3	0	0	3	0	0	3
	0.4	2.5	1.6	0.0	0.0	2.1	0.0	0.0	1.0
알 필요 없다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F	3		6			6			
X ²	2.640		5.143			24.533***			
P	.267		.273			.001			

*** $P < .001$

〈表 IV-2〉에 의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남자와 중학교위원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21.9%, 16.0% 인데 비해 교원위원은 45.4%로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결과 처리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25.5%로 나타났고, 조금 알고 있다 61.4%, 전혀 모른다 12.9%로 모르거나 조금만 알고 있는 경우는 74.3%로 대부분의 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심의결과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혀 모르는 경우 (12.9%)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3 참조>

<表 IV-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잘 알고 있다	59	18	56	16	5	24	45	8	77
	26.5	22.7	30.1	22.8	11.1	17.0	40.9	16.0	25.5
조금 알고 있다	144	41	100	52	33	88	59	38	185
	64.8	51.9	53.7	74.2	73.3	62.4	53.6	76.0	61.4
전혀 모른다	19	20	30	2	7	29	6	4	39
	8.5	25.3	16.1	2.8	15.5	20.5	5.4	8.0	12.9
알 필요 없다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F	3		6			6			
X ²	14.550***		17.264**			30.801***			
P	.001		.002			.001			

** P<.01 *** P<.001

<表 IV-3> 에 의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 변인에서 남자위원, 초등학교위원, 교원위원이 높게 나타났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여자위원, 초등학교위원, 학부모위원이 높게 나타나 학교급별은 P<.01, 성별과 직능별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는 위원들이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교육활동 성과, 안전 심의결과 만족도, 심의 결정사항의 교육활동 반영 정도, 학생 학력향상 영향, 교권침해 여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지원정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활동 성과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목적에 기술된 것과 같이 창의적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영향을 준다' 21.2%,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48.5%,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25.5%,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4.3%로 나타났다. 조금이상 영향을 준다(크게+조금)는 응답이 조사응답자의 69.7%로 상당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응답도 각각 25.5%와 4.3%로 조사응답자의 29.8%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4 참조>

<表 IV-4>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활동 성과

구분	성 별		학 교 급 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49	15	51	7	6	42	13	9	64
	22.0	18.9	27.4	10.0	13.3	29.7	11.8	18.0	21.2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111	35	91	32	23	52	64	30	146
	50.0	44.3	49.9	45.7	51.1	36.8	58.1	60.0	48.5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55	22	40	22	15	38	31	8	77
	24.7	27.8	21.5	31.4	33.3	26.9	28.1	16.0	25.5
오히려 나쁜 영향 을 주고 있다	7	6	4	8	1	8	2	3	13
	3.1	7.5	2.1	11.4	2.2	5.6	1.8	6.0	4.3
잘 모르겠다	0	1	0	1	0	1	0	0	1
	0.0	1.2	0.0	1.4	0.0	0.7	0.0	0.0	0.3
DF	4		8			8			
X ²	6.337		26.181***			22.941**			
P	.175		.001			.003			

** P<.01 *** P<.001

<表 IV-4> 에 의하면, '매우 크게 영향을 준다'에 응답한 내용을 변인별로 보면

중·고등학교위원은 각각 10.0%, 13.3%인 것에 비해 초등학교위원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능에서는 학부모위원 29.7%, 지역위원 18.0%에 비해 교원위원은 11.8%로 나타나 실제 학습을 담당하는 교원위원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에서는 중학교위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능에서는 교원위원이 1.8%이나 학부모·지역인사가 각각 5.6%, 6.0%로 나타나 학의 위원들은 '매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와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에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학교급별은 $p < .001$ 직능별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 심의결과 만족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 심의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11.6%,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74.7%로 조사응답자의 86.3%은 운영위원회 안전심의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5 참조>

<表 IV-5>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 심의결과 만족도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만족한다	29	6	26	4	5	15	14	6	35
	13.0	7.5	13.9	5.7	11.1	10.6	12.7	12.0	11.6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165	60	129	60	36	101	87	37	225
	74.3	75.9	69.3	85.7	80.0	71.6	79.0	74.0	74.7
만족하지 않는다	28	13	31	6	4	25	9	7	41
	12.6	16.4	16.6	8.5	8.8	17.7	8.1	14.0	13.6
잘 모르겠다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DF	3		6			6			
X^2	2.151		8.332			4.846			
P	.341		.080			.303			

<表IV-5> 에 의하면,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하다는 응답에 대해 변인별로

보면 남자위원, 중학교위원, 교원위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능별에서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81.6%, 86.0% 이나 교원위원은 91.7%로 나타나 학내위원 보다 학외위원이 안전 심의결과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의 교육활동 반영 정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어느 정도 교육활동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55.4%로 조사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반영' 39.2%, '잘 모르겠다' 4.0%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된 내용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심의라고 볼 때 상당수 위원들은 심의 결정사항 원안 집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6 참조>

<表 IV-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의 교육활동 반영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모두 반영되고 있다	127	40	116	18	33	69	77	21	167
일부 반영되고 있다	85	33	61	46	11	60	31	27	118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	2	4	0	0	3	1	0	4
잘 모르겠다	8	4	5	6	1	9	1	2	12
	57.2	50.6	62.3	25.7	73.3	48.9	70.0	42.0	55.4
	38.2	41.7	32.8	65.7	24.4	42.5	28.1	54.0	39.2
	0.9	2.5	2.1	0.0	0.0	2.1	0.9	0.0	1.33
	3.6	5.0	2.6	8.5	2.2	6.3	0.9	4.0	4.0
DF	3		6			6			
X ²	2.112		39.653***			19.642**			
P	.550		.001			.003			

** P<.01 *** P<.001

<表 IV-6> 에 의하면, '모두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성별에서 남자위원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학교급별에서는 초·고등학교위원이 각각 62.3%와 73.3%에 비해 중학교위원은 25.7%로 가장 낮았으며,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48.9%, 42.0% 인데 비해 교원위원은 70.0%로 높게 나

타나 학교급별은 $p < .001$, 직능별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학력향상 영향 정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8.3%, ‘영향을 주지 않는다’ 33.5%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表 IV-7 참조>

<表 IV-7>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학력향상 영향 정도

구분	성 별		학 교 급 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15	10	9	12	4	9	7	9	25
약간 영향을 준다	6.7	12.6	4.8	17.1	8.8	6.3	6.3	18.0	8.3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8	39	102	30	25	86	53	18	157
잘 모르겠다	53.1	49.3	54.8	42.8	55.5	60.9	48.1	36.0	52.1
	77	24	61	27	13	35	47	19	101
	34.6	30.3	32.8	38.5	28.8	24.8	42.7	38.0	33.5
	12	6	14	1	3	11	3	4	18
	5.4	7.5	7.5	1.4	6.6	7.8	2.7	8.0	5.9
DF	3		6			6			
X ²	3.392		14.862*			21.057**			
P	.335		.021			.002			

* $P < .05$ ** $P < .01$

<表 IV-7> 에 의하면,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성별에서는 여자, 학교급별에서는 중학교교위원이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았고,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각각 6.3% 인데 비해 지역위원은 18.0%로 가장 높았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서는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24.8%, 38.0% 인데 비해 교원위원은 42.7%로 교외위원 보다 교내위원들이 학생 학력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은 $p < .05$, 직능별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또는 교사의 권한침해 정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또는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 편이다’ 31.2%와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17.9%로 조사응답자의 49.1%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반면에 ‘매우 많이 권한을 침해한다’ 3.9%, ‘약간 침해하고 있다’ 28.2%로 응답자의 32.1%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또는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8 참조>

<表 IV-8>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또는 교사 권한 침해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많이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11	1	8	1	3	1	8	3	12
약간 침해하고 있다	4.9	1.2	4.3	1.4	6.6	0.7	7.2	6.0	3.9
침해하지 않는 편이다	65	20	53	23	9	29	41	15	85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29.2	25.3	28.4	32.8	20.0	20.5	37.2	30.0	28.2
잘 모르겠다	69	25	63	16	15	42	37	15	94
	31.0	31.6	33.8	22.8	33.3	29.7	33.6	30.0	31.2
	38	16	37	13	4	34	14	6	54
	17.1	20.2	19.8	18.5	8.8	24.1	12.7	12.0	17.9
	39	17	25	17	14	35	10	11	56
	17.5	21.5	13.4	24.2	31.1	24.8	9.0	22.0	18.6
DF	4		8			8			
X ²	3.127		15.800*			28.018***			
P	.537		.045			.001			

* P<.05 *** P<.001

<表 IV-8> 에 의하면, ‘매우 많이 침해한다’는 응답은 남자와 초등학교위원, 교원위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여자위원과 초등학교위원이 높았고, 직능별에서는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12.7%, 12.0%인데 비해 학부모위원은 24.1%로 나타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교권침해 의식은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은 p<.05에서 직능별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지원 정도

마지막으로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 지원+많이 지원’은 58.8%로 교장이 지원한다는 인식이 다소 많으나 ‘지원하지 않는 편+전혀 지원하지 않음’ 19.9%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9 참조>

<表 IV-9>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지원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9	13	45	12	15	20	30	22	72
	26.5	16.4	24.1	17.1	33.3	14.1	27.2	44.0	23.9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67	20	52	21	14	28	50	9	87
	30.1	25.3	27.9	30.0	31.1	19.8	45.4	18.0	28.9
지원하지 않은 편이다	33	14	34	8	5	36	9	2	47
	14.8	17.2	18.2	11.4	11.1	25.5	8.1	34.0	15.6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7	6	10	3	0	9	4	0	13
	3.1	7.5	5.3	4.2	0.0	6.3	3.6	0.0	4.3
잘 모르겠다	56	26	45	26	11	48	17	17	82
	25.2	32.9	24.1	37.1	24.4	34.0	15.4	34.0	27.2
DF	4		8			8			
X ²	7.202		11.103			60.609***			
P	.126		.196			.001			

*** P<.001

<表 IV-9> 에 의하면, ‘매우 적극적 지원+많이 지원’ 응답의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남자와 고등학교위원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각각 33.9%, 62.0%에 반해 교원위원은 72.6%로 학내·외 위원에 따라 인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참여태도 및 참여의식은 운영위원들이 위원회

참여동기와 재참여 및 지속 여부, 회의참석 정도, 관심분야, 바람직한 의견 관철 노력, 심의안건 상정정도, 바람직한 의견 개진의사와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 정도 및 건의사항의 사전 의논대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동기

먼저,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권유'(39.7%), '스스로 참여'(34.0%), '떠맡음'(22.5%), '자식의 학교생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2.6%) 순으로 나타나 자의(自意)에 의한 참여 보다 타의에 의해 참여(다른 분의 권유+떠맡음)가 62.2%로 상당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0 참조>

<表 IV-10>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동기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136명)	여 (55명)	초 (116명)	중 (45명)	고 (30명)	학부모 (141명)	교원	지역 (50명)	
스스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43 31.6	22 40.0	46 39.6	12 26.6	7 23.3	58 41.1	-	7 14.0	65 34.0
다른 분의 권유로	59 43.3	17 30.9	43 37.0	20 44.4	13 43.3	44 31.2	-	32 64.0	76 39.7
자식의 학교생활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3 2.2	2 3.6	4 3.4	1 2.2	0 0.0	4 2.8	-	1 2.0	5 2.6
어쩌다 떠맡게 됨	30 22.0	13 23.6	23 19.8	11 24.4	9 30.0	35 24.8	-	8 16.0	43 22.5
기타	1 0.7	1 1.8	0 0.0	1 2.2	1 3.3	0 0.0	-	2 4.0	2 1.0
DF	4		8			4			
X ²	3.128		8.976			24.977***			
P	.537		.344			.001			

*** P<.001

<表 IV-10>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여자와 초등학교위원이 스스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어쩌다 떠맡은 경우는 여자와 고등학교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에 비해 스스로 참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재참여 및 지속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재참여(다른학교 포함) 또는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참여’가 60.4%로 가장 높고, ‘다른 분의 권유시’ 15.6%, ‘참여하지 않음’ 14.2%로 나타났다. 이를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가능한 참여+권유시)되는 조사응답자는 76.0%로 상당수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1 참조>

<表 IV-11> 학교운영위원회 재참여 및 지속 여부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가능하다면 참여 하겠다	138	44	116	42	24	89	71	22	182
	62.1	55.7	62.3	60.0	53.3	63.1	64.5	44.0	60.4
다른 분의 권유가 있으면 참여하겠다	33	14	27	14	6	14	23	10	47
	14.8	17.7	15.5	20.0	13.3	9.9	20.9	20.0	15.6
다신 참여하지 않겠다	29	14	23	12	8	24	12	7	43
	13.0	17.7	12.3	17.1	17.7	17.0	10.9	14.0	14.2
잘 모르겠다	22	7	20	2	7	14	4	11	29
	9.9	8.8	10.7	2.8	15.5	9.9	3.6	22.0	9.6
DF	3		6			6			
X ²	1.659		8.128			21.894***			
P	.646		.229			.001			

*** P<.001

<表 IV-11>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남자와 초등학교위원이 가능하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다신 참여하지 않음’는 응답은 각 변인이 비슷한 응답을 보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가능하면 참여’는 응답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각각 63.1%, 64.5%로 절반을 넘었으나, 지역위원은 44.0%로 낮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석’ 50.5%, ‘특별한일 제외 참석’ 48.5%, ‘관심이 있는 안건이 있을 때’와 ‘거의 참석하지 않음’은 각각 0.6%, 0.3%로 응답하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2 참조>

<表 IV-1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반드시 참석한다	109	43	93	35	24	60	75	17	152
	49.1	54.4	50.0	50.0	53.3	42.5	68.1	34.0	50.5
개인의 특별한 일 제외하고 참석한다	110	36	91	35	20	81	35	30	146
	49.5	45.5	48.9	50.0	44.4	57.4	31.8	60.0	48.5
관심 있는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한다	2	0	1	0	1	0	0	2	2
	0.9	0.00	0.5	0.0	2.2	0.0	0.0	4.0	0.6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1	0	1	0	0	0	0	1	1
	0.4	0.00	0.5	0.0	0.0	0.0	0.0	2.0	0.3
DF	3		6			6			
X ²	1.586		3.048			36.330***			
P	.663		.083			.001			

*** P<.001

<表 IV-12> 에 의하면, ‘반드시 참석’에 대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는 비슷한 응답을 보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직능별에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각각 42.5%, 34.0% 이나 교원위원은 68.1%로 학내위원이 학외위원에 비해 회의참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심의사항 중 관심분야

심의사항 중 어떤 분야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부분’(37.3%)을 심의안건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

부분'(30.0%), '재정 및 회계부분'(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13 참조>

<表 IV-13> 심의사항 중 관심분야

구분	성 별		학 교 급 별			직 능 별			계
	남 (221명)	여 (79명)	초 (185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09명)	지역 (50명)	
교육행정 부분	19	3	13	3	6	6	14	2	22
	8.6	3.8	7.0	4.2	13.3	4.2	12.8	4.0	7.3
교육과정 부분	81	31	63	31	18	58	38	16	1121
	36.6	39.2	34.0	44.2	40.0	41.1	34.8	32.0	37.3
교육(복지)시설 부분	67	23	55	18	17	55	17	18	90
	30.3	29.1	29.7	25.7	37.7	39.0	15.6	36.0	30.0
재정 및 회계 부분	52	16	51	14	3	14	40	14	68
	23.5	20.2	27.5	20.0	6.6	9.9	36.7	28.0	22.6
기타	2	6	3	4	1	8	0	0	8
	0.9	7.5	1.6	5.7	2.2	5.6	0.0	0.0	2.6
DF	4		8			8			
X ²	12.004*		16.476*			49.357***			
P	.017		.036			.001			

* P<.05 *** P<.001

<表 IV-13>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는 전체응답과 비슷하였으나, 직능별에서 학부모위원은 교육과정과 복지분야, 교원위원은 재정과 교육과정, 지역위원은 복지와 교육과정을 관심분야의 우선 순위로 응답하여 직능에 따라 관심분야가 다르게 나타나 성별과 학교급별은 $p < .05$ 에서, 직능별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바람직한 의견 관철노력 정도

회의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대해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관철+관철되도록 노력'이 82.7%로 대부분의 위원들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별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表 IV-14 참조>

〈表 IV-14〉 바람직한 의견 관철노력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강하게 주장하여 꼭 관철시킨다	23	12	21	8	6	11	16	8	35
	10.3	15.1	11.2	11.4	13.3	7.8	14.5	16.0	11.6
가급적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159	55	137	52	25	106	77	31	214
	71.6	69.6	73.6	74.2	55.5	75.1	70.0	62.0	71.1
견해만 피력하고 만다	38	11	25	10	14	24	16	9	49
	17.1	13.9	13.4	14.2	31.1	17.0	14.5	18.0	16.2
별로 관심 없다	2	1	3	0	0	0	1	2	3
	0.9	1.2	1.6	0.0	0.0	0.0	0.9	4.0	1.0
DF	3		6			6			
X ²	1.644		10.961			10.614			
P	.649		.090			.101			

6) 심의안건 상정 정도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정한 적 없다’ 47.0%, ‘1-4건 상정’ 46.3%, ‘5건 이상 상정’ 5.0%, ‘관심 없다’ 1.6%로 나타났다. 1건 이상 상정한 경우는 51.3%로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었으나, 상정한 적이 없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48.6%로 나타나 상당수 위원들은 심의안건 상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5〉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직능별에서 교원위원은 5건 이상 상정한 경우가 9.1%이나 학부모위원은 3.5%, 지역위원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1건 이상 상정한 경우는 학부모위원 53.9%, 지역위원 38.0%, 교원위원은 54.1%로 나타나 심의안건 상정에 지역위원이 가장 낮고 교원위원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表 IV-15〉 심의 안건 상정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1명)	여 (79명)	초 (185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09명)	지역 (50명)	
매우 많이 상정했다 (5건 이상)	13	2	7	5	3	5	10	0	15
	5.8	2.5	3.7	7.1	6.6	3.5	9.1	0.0	5.0
상정한 적이 약간 있다 (1~4건)	101	38	90	30	19	71	49	19	139
	45.7	48.1	48.6	42.8	42.2	50.3	44.9	38.0	46.3
상정한 적 없다	103	38	83	35	23	65	46	30	141
	46.6	48.1	44.8	50.0	51.1	46.1	42.2	60.0	47.0
별로 관심 없다	4	1	5	0	0	0	4	1	5
	1.8	1.2	2.7	0.0	0.0	0.0	3.6	2.0	1.6
DF	3		6			6			
X ²	1.510		5.584			15.544*			
P	.680		.471			.016			

* P < .05

7) 바람직한 교육활동 의견 개선 의사

평소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개선하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반드시 개선' 56.8%, '비슷한 안건이 있을 때 개선' 40.5%, '의견개선 안함' 1.9%, '잘 모르겠다' 0.6%로 응답하여 조사응답자 97.3%가 의견을 개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表 IV-16〉에 의하면, 성별에 차이는 없었으며, 학교급별에서 중·고등학교위원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로는 '다음회의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응답은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이 각 50.0%이나 학부모위원은 64.5%로 학부모위원이 심의안건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견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지역위원이 8.0%로 평균 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表 IV-16〉 바람직한 교육활동 의견 개선 의사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다음회의에 반드시 개선하겠다	129	42	106	40	25	91	55	25	171
	58.1	53.1	56.9	57.1	55.5	64.5	50.0	50.0	56.8
비슷한 안건이 있을 때 개선하겠다	86	36	73	29	20	49	52	21	122
	38.7	45.5	39.2	41.4	44.4	34.7	47.2	42.0	40.5
의견을 개선하지 않겠다	5	1	6	0	0	1	1	4	6
	2.2	1.2	3.2	0.0	0.0	0.7	0.9	8.0	1.9
잘 모르겠다	2	0	1	1	0	0	2	0	2
	0.9	0.0	0.5	1.4	0.0	0.0	1.8	0.0	0.6
DF	3		6			6			
X ²	1.918		4.943			19.549**			
P	.590		.051			.003			

** P < .01

7)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회의 참석 전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련자료를 찾아보는 등 올바른 결정을 위해 연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지 않음' 42.3%, '관심 있는 안건만 연구' 41.0%, '모든 안건에 대해 연구한다'와 '연구한 적 없다' 각 8.3%로 나타났다.

〈表 IV-17〉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 정도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1명)	여 (79명)	초 (185명)	중 (70)	고 (45명)	학부모 (140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모든 안건에 대해 연구한다	21	4	14	8	3	10	7	8	25
	9.5	5.0	7.5	11.4	6.6	7.1	6.3	16.0	8.3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95	28	81	27	15	55	47	21	123
	42.9	35.4	43.7	38.5	33.3	39.2	42.7	42.0	41.0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다	84	43	76	32	19	66	48	13	127
	38.1	54.4	41.0	45.7	42.2	47.4	43.6	26.0	42.3
연구한 적이 없다	21	4	14	3	8	9	8	8	25
	9.5	5.0	7.5	4.2	17.7	6.4	7.2	16.0	8.3
DF	3		6			6			
X ²	7.267		8.761			12.714*			
P	.064		.187			.048			

* P < .05

〈表 IV-17〉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연구한다(모든 안전+관심 있는 안전)는 응답이 49.3%, 전혀 연구하지 않는 경우(특별히 연구 않음+연구한 적 없다)가 50.6%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조금이라도 연구한다'는 성별과 학교급별에서 남자와 초등학교위원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와 교원위원이 각각 46.4%, 49.0%인데 비해 지역위원은 58.0%로 지역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8)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의논 및 건의 대상

평소 느꼈던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와 의논 또는 건의 하겠는지에 대해서 '교장'(37.5%), '회의시' (33.2%), '운영위원장'(17.7%), '자식의 담당교사'(11.0%)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18 참조〉

〈表 IV-18〉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의논 및 건의 대상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19명)	여 (79명)	초 (183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07명)	지역 (50명)	
학교운영위원회	82	17	63	25	11	59	25	15	99
회의시 건의하겠다	37.4	21.5	34.4	35.7	24.4	41.8	23.3	30.0	33.2
운영위원장과	42	11	39	8	6	26	8	19	53
사전 의논하겠다	19.1	13.9	21.3	11.4	13.3	18.4	7.4	38.0	17.7
교장과 사전	76	36	65	26	21	34	67	11	112
의논하겠다	34.7	45.5	35.5	37.1	46.6	24.1	62.6	22.0	37.5
자식의 담당교사	18	15	16	10	7	21	7	5	33
와 의논하겠다	8.2	18.9	8.7	14.2	15.5	14.8	6.5	10.0	11.0
기타	1	0	0	1	0	1	0	0	1
	0.4	0.0	0.0	1.4	0.0	0.7	0.0	0.0	0.3
DF	4		8			8			
X ²	13.596**		11.448			57.243***			
P	.009		.178			.001			

** P < .01 *** P < .001

〈表 IV-18〉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자위원은 회의시, 여자위원은 교장이 높게 나타났다.($P < .01$) 학교급별로는 초·중·고등학교위원 모두 교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 직능별에서는 학부모위원은 회의시, 교원위원은 교장,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장이라고 응답하여 변인에 따라 의논 상대자를 달리하고 있으며, 교장이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요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요인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책임 운영 가능여부와 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 활성화 이유 및 부진 이유, 활성화를 위한 개혁대상 및 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장 및 지역위원의 성향, 위원회의 바람직한 제도, 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우선 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0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책임운영 가능성

먼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자율적 책임운영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약간가능'(50.1%), '충분히 가능'(21.5%), '가능하지 않음'(16.2%), '잘 모르겠다'(11.9%)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19 참조>

<表 IV-19>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책임운영 가능성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충분히 가능하다	44	21	47	9	9	45	9	11	65
	19.8	26.5	25.2	12.8	20.0	31.9	8.1	22.0	21.5
약간 가능하다	124	27	89	38	24	53	67	31	151
	55.8	34.1	47.8	54.2	53.3	37.5	60.9	62.0	50.1
가능하지 않다	35	14	25	13	11	20	23	6	49
	15.7	17.7	13.4	18.5	24.4	14.1	20.9	12.0	16.2
잘 모르겠다	19	17	25	10	1	23	11	2	36
	8.5	21.5	13.4	14.2	2.2	16.3	10.0	4.0	11.9
DF	3		6			6			
X ²	15.012**		11.431			32.121***			
P	.002		.076			.001			

** P < .01 *** P < .001

〈表 IV-19〉에 의하면, 책임운영이 ‘충분히 가능+약간 가능’을 ‘가능하다’는 응답으로 보면 조사응답자의 71.7%로써 가능하지 않다 16.2%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능하다’(충분히 가능+약간 가능)는 응답 중 학교급별에서는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여자위원(60.6%)에 비해 남자위원은 75.6%로 높게 나타났고, 직능별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각각 69.4%, 69.0%인데 비해 지역위원은 84.0%로 높게 나타났다. ‘충분히 가능하다’에서는 학부모위원 31.9%, 지역위원 22.0%, 교원위원은 8.1%로 교원위원들이 학교운영 위원회에 의한 학교 책임운영에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p < .01$ 직능별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되었다’(43.1%), ‘매우 활성화되었다’ (18.9%), ‘활성화되지 않았다’(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2.2%나 되었다.

〈表 IV-20〉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매우 활성화 되었다	43	14	29	15	13	18	31	8	57
	19.3	17.7	15.5	21.4	28.8	12.7	28.1	16.0	18.9
조금 활성화 되었다	107	23	83	26	21	59	51	20	130
	48.2	29.1	44.6	37.1	46.6	41.8	46.3	40.0	43.1
활성화되지 않았다	28	19	29	14	4	22	16	9	47
	12.6	24.0	15.5	20.0	8.8	15.6	14.5	18.0	15.6
잘 모르겠다	44	23	45	15	7	42	12	13	67
	19.8	29.1	24.7	21.4	15.5	29.7	10.9	26.0	22.2
DF	3		6			6			
X^2	12.140**		7.898			18.994**			
P	.007		.246			.004			

** $P < .01$

〈表 IV-20〉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었다(매우 활성화+조금 활성화)고 인식

하는 응답자는 조사응답자의 62.1%이며, 활성화되지 않았다(잘 모르겠다 포함)는 응답자는 37.8%로 조금이라도 활성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었다'는 응답은 학교급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가 긍정적인 답변(67.5%)이 많았으며, 직능별에서는 교원위원은 74.4%로 학부모위원54.5%, 지역위원 56.0%에 비해 교원위원이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나 성별과 직능별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성'(41.1%), '교장의 적극성' (25.1%), '일반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지원'(22.4%), '법규 등 제도'(10.7%),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21 참조>

<表 IV-21>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이유

구분	성 별		학 교 급 별			직 능 별			계
	남 (150명)	여 (37명)	초 (112명)	중 (41명)	고 (34명)	학부모 (77명)	교원 (82명)	지역 (28명)	
법규 등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17	3	14	5	1	11	7	2	20
운영위원들의 적극성이 있어서	11.33	8.11	12.5	12.2	2.9	14.29	8.54	7.14	10.7
일반 교사와 학부 모들의 적극지원	61	16	49	15	13	30	38	9	77
교장의 적극성이 있어서	40.67	43.24	43.7	36.5	38.2	38.96	46.34	32.14	41.1
기타	34	8	23	9	10	16	21	5	42
	22.67	21.62	20.5	21.9	29.4	20.78	25.61	17.86	22.4
	38	9	25	12	10	20	15	12	47
	25.33	24.32	22.3	29.2	29.4	25.97	18.29	42.86	25.1
	0	1	1	0	0	0	1	0	1
	0.00	2.70	0.89	0.0	0.0	0.00	1.22	0.00	0.5
DF	4		8			8			
X ²	4.417		5.270			9.845			
P	.353		.728			.276			

<表 IV-21>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 급별에서는 전체 응답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직능별에서 지역위원은 교장의 적극성과 운영위원들의 적극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위원은 운영위원들의 적극성과 일반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 지원 순으로 나타나 직능에 따라 인식을 약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운영 미숙’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의식 부족’ (28.1%), ‘법규 등 제도상 문제’(8.4%), ‘위원들 간의 협조체제 부족’(5.6%)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일반교사의 인식부족은 각각 4.23%, 2.8%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2 참조>

<表 IV-22>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45명)	여 (26명)	초 (39명)	중 (18명)	고 (14명)	학부모 (39명)	교원 (18명)	지역 (14명)	
법규 등 제도상의 경직성	6	0	6	0	0	1	0	5	6
	13.3	0.0	12.7	0.00	0.0	2.5	0.0	35.7	8.45
운영위원들의 전문 성 및 의식 부족	14	6	12	8	0	14	5	1	20
	31.1	23.0	25.5	44.4	0.0	35.9	27.7	7.1	28.1
일반 교사의 인식 부족	1	1	2	0	0	0	2	0	2
	2.2	3.8	4.2	0.0	0.00	0.0	11.1	0.0	2.8
일반 학부모의 인식 부족	0	3	2	1	0	2	1	0	3
	0.0	11.5	4.2	5.5	0.00	5.1	5.5	0.0	4.2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운영 미숙	19	15	20	8	6	20	8	6	34
	42.2	57.6	42.5	44.4	100.0	51.2	44.4	42.8	47.8
위원들 간에 협조 체제 부족	3	1	4	0	0	1	2	1	4
	6.6	3.8	8.5	0.0	0.0	2.5	11.1	7.1	5.6
기타	2	0	1	1	0	1	0	1	2
	4.4	0.0	2.1	5.5	0.0	2.5	0.0	7.1	2.8
DF	6		12			12			
X ²	11.403		14.409			28.416**			
P	.077		.275			.005			

** P < .01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두 번째 요인으로 응답한 ‘위원들의 전문성 및 의식 부족’은 학부모·교원위원은 각각 35.9%, 27.7%이나 지역위원은 7.1%로 지역위원이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세 번째 요인으로 응답한 ‘법규 및 제도상 문제’는 학부모와 교원위원은 각각 2.5%, 0.0%이나 지역위원은 35.7%로 지역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 및 의식부족 보다는 법규 등 제도상의 경직성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능별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우선 개혁 대상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먼저 개혁해야할 사람에 대해서는 교장 29.3%, 학교운영위원들 27.6%, 일반 학부모 26.3%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사와 지역 사회는 각각 6.3%와 5.0%로 나타났다. <表 IV-23 참조>

<表 IV-2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우선개혁 대상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8명)	초 (185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0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교장	61	27	62	19	7	44	27	17	88
	27.4	34.6	33.5	27.1	15.5	31.4	24.5	34.0	29.3
학교운영위원들	61	22	46	16	21	49	29	5	83
	27.4	28.2	24.8	22.8	46.6	35.0	26.3	10.0	27.6
일반교사들	15	4	6	10	3	13	1	5	19
	6.7	5.1	3.2	14.2	6.6	9.2	0.9	10.0	6.3
일반 학부모들	63	16	54	16	9	33	34	12	79
	28.3	20.5	29.1	22.8	20.0	23.5	30.9	24.0	26.3
지역사회	8	7	7	5	3	0	12	3	15
	3.6	8.9	3.7	7.1	6.6	0.0	10.9	6.0	5.0
기타	14	2	10	4	2	1	7	8	16
	6.3	2.5	5.4	5.7	4.4	0.7	6.3	16.0	5.3
DF	5		10			10			
X ²	7.457		24.005**			50.620***			
P	.189		.008			.001			

** $P < .01$ *** $P < .001$

<表 IV-23> 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자는 일반 학부모, 여자는 교장을 우선 개혁대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학교급별에서는 초·중학교위원은 교장을, 고등학교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나타났고($p < .01$) 직능별에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 교원위원은 일반 학부모들, 지역위원은 교장을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대상이라고 응답하여 직능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6)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이 갖추어야할 소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이 갖추어야할 소양 또는 지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문성'(46.6%), '위원들 간에 협조체제'(31.5%), '회계 및 행정의 전문성'(12.0%)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24 참조>

<表 IV-2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이 갖추어야할 소양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1명)	여 (77명)	초 (183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38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문성	104	35	79	33	27	51	71	17	139
	47.0	45.4	43.1	47.1	60.0	36.9	64.5	34.0	46.6
회계 및 행정의 전문성	28	8	25	8	3	21	15	0	36
	12.6	10.3	13.6	11.4	6.6	15.2	13.6	0.0	12.0
청소년 문제 전문성	8	1	5	4	0	8	1	0	9
	3.6	1.3	2.7	5.7	0.0	5.8	0.9	0.0	3.0
학생 진로에 대한 해박한지식	10	5	13	2	0	13	0	2	15
	4.5	6.4	7.1	2.8	0.0	9.4	0.0	4.0	5.0
위원들 간의 협조체제	67	27	57	23	14	45	22	27	94
	30.3	35.0	31.1	32.8	31.1	32.6	20.0	54.0	31.5
기타	4	1	4	0	1	0	1	4	5
	1.8	1.3	2.1	0.0	2.2	0.0	0.9	8.0	1.6
DF	5		10			10			
X ²	2.233		12.852			64.312***			
P	.816		.232			.001			

*** P < .001

<表 IV-24>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직능별에서 지역위원은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문성'(34.0%) 보다 '위원들 간의 협조체제'(54.0%)를 우선 갖추어야할 소양이라고 응답하여 지역위원들은 위원들 간의 협조체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7)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위원의 성향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위원의 성향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적 덕망

가'(38.6%), '교육전문가'(29.3%), '재력가'(13.0%) 순으로 나타났다. <表 IV-25 참조>

<表 IV-25>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위원의 성향

구분	성 별		학 교 급 별			직 능 별			계
	남 (221명)	여 (79명)	초 (186명)	중 (69명)	고 (45명)	학부모 (140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될 재력가	32	7	21	11	7	8	23	8	39
전직 교원 등 교육 전문가	14.4	8.8	11.2	15.9	15.5	5.7	20.9	16.0	13.0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	55	33	57	22	9	48	31	9	88
청소년 선도 등 사회 사업가	24.8	41.7	30.6	31.8	20.0	34.2	28.1	18.0	29.3
동창회를 대표 하는 인사	92	24	80	19	17	57	40	19	116
기타	41.6	30.3	43.0	27.5	37.7	40.7	36.3	38.0	38.6
청소년 선도 등 사회 사업가	17	6	11	7	5	10	10	3	23
동창회를 대표 하는 인사	7.6	7.5	5.9	10.1	11.1	7.1	9.0	6.0	7.6
기타	15	4	4	10	5	11	2	6	19
기타	6.7	5.0	2.1	14.4	11.1	7.8	1.8	12.0	6.3
기타	10	5	13	0	2	6	4	5	15
기타	4.5	6.3	6.9	0.0	4.4	4.2	3.6	10.0	5.0
DF	5		10			10			
X ²	9.627		26.788**			25.237**			
P	.087		.003			.005			



<表 IV-25> 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자위원은 사회적 덕망가, 여자위원은 교육전문가, 학교급별에서 초·고등학교위원은 사회적 덕망가, 중학교위원은 교육전문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능에서 학부모·교원·지역위원 모두 제1순위를 사회적 덕망가로 하였으나, 다음 순으로 학부모위원은 교육전문가와 동창회 대표인사,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교육전문가와 재력가 순으로 학교급별과 직능별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8)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성향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성향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 50.5%, '개혁적인 인사' 17.3%,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통솔력이 뛰어난 인사'가 각 14.3%로 나타나 조사응답자 50% 이상이 교장은 교육전문가라야 한다는 인식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6 참조>

<表 IV-26>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장의 성향

구분	성별		학교급별			직능별			계
	남 (221명)	여 (78명)	초 (185명)	중 (69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08명)	지역 (50명)	
교육 전문가	114	37	88	37	26	60	63	28	151
	51.5	47.4	47.5	53.6	57.7	42.5	58.3	56.0	50.5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	30	13	30	7	6	15	20	8	43
	13.5	16.6	16.2	10.1	13.3	10.6	18.5	16.0	14.3
통솔력이 뛰어난 인사	33	10	27	12	4	22	16	5	43
	14.9	12.8	14.5	17.3	8.8	15.6	14.8	10.0	14.3
개혁적인 인사	35	17	34	13	5	39	9	4	52
	15.8	21.7	18.3	18.8	11.1	27.6	8.3	8.0	17.3
기타	9	1	6	0	4	5	0	5	10
	4.0	1.2	3.2	0.0	8.8	3.5	0.0	10.0	3.3
DF	4		8			8			
X ²	3.277		11.290			33.383***			
P	.513		.186			.001			

*** P<.001

<表 IV-26> 에 의하면, 성별과 학교급별에서는 전체 조사응답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으나, 직능별에서 두 번째 순위는 전체와는 달리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개혁적인 인사'가 아닌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라고 응답해 직능에 따라 교장의 성향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9)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필요한 위원회의 성격은 사안에 따라 '심의·자문기구' 45.5%, '자문기구' 20.2%, '현행(심의기구)' 19.2%로 나타났다.

〈表 IV-27〉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성격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2명)	여 (79명)	초 (186명)	중 (70명)	고 (45명)	학부모 (141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현행대로	41	17	46	5	7	26	22	10	58
	18.4	21.5	24.7	7.1	15.5	18.4	20.0	20.0	19.2
자문기구	47	14	37	11	13	8	43	10	61
	21.1	17.7	19.8	15.7	28.8	5.6	39.0	20.0	20.2
의결기구	27	9	12	18	6	23	5	8	36
	12.1	11.3	6.4	25.7	13.3	16.3	4.5	16.0	11.9
사안에 따라 심의·자문기구	103	34	87	31	19	80	35	22	137
	46.4	43.0	46.7	44.2	42.2	56.7	31.8	44.0	45.5
기타	4	5	4	5	0	4	5	0	9
	1.8	6.3	2.1	7.1	0.0	2.8	4.5	0.0	2.9
DF	4		8			8			
X ²	4.791		32.802***			52.975***			
P	.309		.001			.001			



〈表 IV-27〉에 의하면, 응답한 내용은 모든 변인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교원위원은 사안에 따라 심의·자문기구(31.8%) 보다 자문기구(39.0%)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위원은 자문기구 보다는 현행과 같은 심의기구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별과 직능별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10)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우선 사항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에 대한 우선 사항으로 ‘위원들의 적극성 및 교육전문성 향상’(40.1%), ‘학교장의 의식변화’(19.0%), ‘일반학부모와 교사들의 의식변화’(14.7%), ‘위원들의 의식변화’(12.7%) 순으로 나타나 위원들은 학교장이나 일반교사, 학부모의 의식변화보다 위원들 자신 스스로 교육전문성 함양과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8 참조〉

〈表 IV-28〉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우선 사항

구분	성 별		학교급별			직 능 별			계
	남 (221명)	여 (78명)	초 (185명)	중 (69명)	고 (45명)	학부모 (139명)	교원 (110명)	지역 (50명)	
법규 등 제도의 개선	15	4	12	2	5	5	6	8	19
	6.7	5.1	6.4	2.9	11.1	3.6	5.4	16.0	5.3
기능의 변화(심의기구 → 의결기구)	14	3	8	7	2	9	2	6	17
	6.3	3.8	4.3	10.1	4.4	6.4	1.8	12.0	5.6
위원들의 적극성 및 교육 전문성 향상	92	28	70	27	23	42	57	21	120
	41.6	35.9	37.8	39.1	51.1	30.2	51.8	42.0	40.1
학교장의 의식 변화	39	18	41	9	7	41	11	5	57
	17.6	23.0	22.1	13.0	15.5	29.5	10.0	10.0	19.0
위원들의 의식 변화	24	14	25	10	3	15	20	3	38
	10.8	17.9	13.5	14.4	6.6	10.7	18.1	6.0	12.7
일반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식변화	33	11	26	14	4	27	13	4	44
	14.9	14.1	14.0	20.2	8.8	19.4	11.8	8.0	14.7
기타	4	0	3	0	1	0	1	3	4
	1.8	0.0	1.6	0.0	2.2	0.0	0.9	6.0	1.3
DF	6		12			12			
X ²	5.960		15.595			56.853***			
P	.428		.210			.001			



*** P < .001

〈表 IV-28〉 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의 의식변화, 교원위원은 위원들의 의식변화, 지역위원은 제도개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교내위원들은 위원들의 의식변화를, 교외위원들은 제도개선과 학교장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직능별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V. 結論 및 提言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실시하여 7년여가 지난 오늘 현재 전국의 국·공·사립의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교원·지역위원들의 의식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 운영에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3개 문항을 종합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약간만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설치 목적이나 기능, 법률적·행정적인 사항에 대해 폭넓은 지식 함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에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설치 목적인 학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는 21.2%로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위원들이 가장 높게 학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의 교육활동 반영 정도에 대해서 모두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시행의 확실성 없이 심의 결정하여 시행에 차이가 발생하였거나, 시행 결과의 공개 부재 사항으로써, 시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지하는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원들의 위원회 참여 태도 및 참여 의식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정도는 98.5%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시 바람직한 의견의 관철노력 정도는 81.7%가 가급적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의 참석태도'와 '바람직한 의견 관철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동기 중 62.3%는 다른 분의 권유 또는 어쩌다 떠맡게 됨 등 타의에 의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려는 분위기 조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심의안건 상정 정도에서는 위원 절반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제 제안할 안건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유로운 안건 상정 분위기가 저해하거나 상정 통로의 부재일 수도 있으므로 전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각 주체의 대표를 통해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 의식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 분야, 복지시설 분야, 재정 및 회계 분야, 교육행정 분야 순 이나 직능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교육과정과 복지시설 분야, 교원위원은 교육과정과 재정 및 회계 분야, 지역위원은 복지시설과 교육과정 분야로 직능에 따라 관심사항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관심사항의 다양성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97.3%가 교육활동에 바람직한 의견이 있을 경우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건심의 결과 만족도에서 86.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6.0%가 다시 (다른학교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활동의식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의안건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경우가 49.3%로 연구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시설 등 여건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요인에서 첫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또는 교사의

권한 침해 정도에 대해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4%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고 있으나, 약간이라도 침해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3.5%에 달해 학교 또는 교사의 권한 침해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의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인식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7.2%로 나타나 교장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 내용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위원들의 학교 경영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바람직한 의견이 있을 때는 교장과 의논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 학교운영에 있어 교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운영 미숙(47.8%)을 제일 큰 이유로 꼽고 있어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고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두 번째 이유로 나타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의식부족(28.1%)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 스스로가 학교경영과 교육에 대한 지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차원의 지식 습득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는 62.0% 이상이 약간 이상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해 활성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적 책임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71.6%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해 자율적 책임운영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사람은 교장으로 나타나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은 교육전문가, 지역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교장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위원은 전직교원이나 재력이 보다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꾼제, 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아 이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더 많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지식, 운영에 대한 인식과 참여 태도 및 참여 의식, 운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들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운영에의 과거 관행을 견제해야 하며, 단위학교는 운영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교 구성주체들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갖는 의의는 학교교육이 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학교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다. 학부모와 교직원은 지역사회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안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며, 교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자치의 자율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책임조직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자주성과 함께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지워진다. 교육은 백년지계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창의력을 길러주며,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민주시민 육성에 매우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이들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모두 그에 걸맞는 교육의 전문성과 철저

한 책임의식 제고 등 자율과 자치능력을 갖추어질 때만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 직능별 위원 선출, 회의진행, 의사결정 등 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된다. 그러나 이 모든 행정절차에는 각기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반드시 그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법에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 경영 또는 위원회 운영의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할 것이다. 투명성은 비리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의 이해 속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일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지역위원은 각자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운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안기성 외(1998), 「한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학지사.
윤종건 외(2002), 「전환시대의 한국교육행정」,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학위 연구논문>

- 강정숙(1998),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고원철(199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의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이길수(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장명순(1999),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최장명(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일반 연구논문>

- 김신복(1999), "교육행정의 취약성과 제도적 개혁방안," 『행정논총(31)』 .
김용일(1999),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의 정치학,"
『교육법학연구(11)』 대한교육법학회.
박종필, 신현석(2001), "우리나라와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비교,"
『한국초등교육학회(14)』 .
박종필(2002),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한 연구," 『초등교육연구(15)』
한국초등교육학회.

- 문지영(200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
『교육이론과실천(11)』,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손승남(2001), "교육자치의 본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한독교육학연구(6)』, 한독교육학회.
- 송대현(1997),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의 모색," 『한국교육연구소 소식』
한국교육연구소.
- 신상명(2000),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시사점,"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학교 경제문제연구소.
- 신현석; 박종필(2001), "우리나라와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비교,"
『초등교육연구』.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논총(10)』, 한독사회과학회.
- 이기우(1997),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 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24)』,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지방행정연구(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일환(199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학논총(18)』, 한국교육학회.
- 정태수(1995), "한국의 교육개혁과 교육제도의 변천,"
『교육법학연구(7)』, 대한교육법학회.
- 주삼환(1998),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육발전논총(19)』,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최희선(1998),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육학회소식지(220)』, 한국교육학회.

<일반 자료>

교육법전편찬위원회(2002), 『교육법전』, 교학사.

교육인적자원부(2000), 『학교운영위원회의 길잡이』, 교육인적자원부.
-----(2002), 『알기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교육인적자원부.
----- (1995), 『-5. 31 교육개혁 방안에 의한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실시지침(2)』, 한국교육시설학회.
국회사무처(1991), 『주요국의 교육자치제도』, 서울, 신우인쇄사.
제주도교육청(2000), 『제주도조례집』, 제주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6), 『초·중등학교 운영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삼영인쇄사.

<기타자료>

제주도교육청(2002), "2002학년도 각급학교 현황," 제주도교육청.
----- (2002), "2002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제주도교육청.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Consciousness of members of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 Related with the devices for improvement
for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

Yang, You-Ho

Major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r :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making a system take root through a research and analysis on consciousness of members of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about school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t four kinds of research tasks : the level of knowledge that members have on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system ; the cognitions about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 the participating attitude and consciousness ; and the limitations for management and factors for revitalization. And we used questionnaires for examine the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400 members of 35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and high schools in Jeju-do with regular ratio by area of cities and countries by random sampling method. And collected materials were

analyzed for the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verification using statistic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s.

First, in the level of knowledge that the members have on the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system, the questionnaires told us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general knowledge such as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committee, the function of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etc.. So some devices for fostering the wide range of knowledge on such things must be groped.

Second, in the cognition about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the questionnaires told us that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could not have any great effect on not only the various creative educational activities but also the improvement of students' scholastic abilities. So the improvement devices on this matter must be needed to found out. And also they recognized that the matters deliberated and decided by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did not enforced all, so the systematic improvement devices must be prepared to make a plan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liberated and decided matters would enforce and the enforced results must be officially announced.

Third, in the participating attitude and consciousness, the 62.3% answerers said that the motive they became to participate the committee was another's will. So the devices are needed for creating a atmosphere which all of the composing members - parents of the students, teachers, local residents, etc. - would participate actively. And just 49.3% members answered that they try to decide deliberating matters correctly, so devices are needed to make circumstance like establishing an institution to study.

Forth, in the limitations for management and factors for revitalization, 33.5% of answerers recognized that the committee violates the educational authority.

Therefore, the contents on violating schools' or teachers' authority must be grasped through an in-depth study and the countermeasures must be found out.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the principles of each school have the greatest effect on the school management, but the greatest reason that hinders revitalization of the committee also was the nonactive attitude of the principles. Therefore, the principles must have the active thought and management ability to revitalize the committee and a man of high moral repute must be selected and participate in a committee as a member in the area rather than educational professional or a man of means.

Lastly, for a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to be revitalized and be taken root, most of all, members themselves should foster educational professional and active participating consciousness, and then should restraint the past traditional practice managing school. And finally, a unit school should prepare for some systematic devices to secure democratic and honest management and for members to participate actively and the members should change their consciousness actively to revitalize the steering committee of school.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질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고, 개선 사항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응답한 내용은 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불편을 드리게되어 죄송하나 끝까지 읽어보시고 모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양 유 호 올림

다음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v)하여 주시고, 기타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단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왜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지 그 설치 목적을 예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었다 ----- ② 약간 알고 있었다
----- ③ 모르고 있었다 ----- ④ 알 필요 없다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심의 사항) 11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약간 알고 있다
----- ③ 전혀 모른다 ----- ④ 알 필요 없다

3.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회의자료 배부시기,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방법 등 행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전혀 모른다 ----- ④ 알 필요 없다

4.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목적에 기술된 것과 같이 창의적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 ②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
----- ③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 ④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5. 귀하께서는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어느 정도 교육활동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모두 반영되고 있다 -----② 일부 반영되고 있다
-----③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7.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준다 -----② 약간 영향을 준다
-----③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8.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또는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② 약간 침해하고 있다
-----③ 침해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9. 귀 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③ 지원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10. 귀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지역위원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스스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② 다른 분의 권유로
 ③ 자식의 학교생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④ 어찌다 떠맡게 됨
 ⑤ 기타 []

11. 다음에 다시(다른 학교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가능하다면 참여하겠다 ② 다른 분의 권유가 있으면 참여하겠다
 ③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 ④ 잘 모르겠다

12. 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 ① 반드시 참석한다 ② 개인의 특별한 일 제외하고 참석한다
 ③ 관심 있는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한다 ④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13. 귀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어떤 분야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십니까?

- ① 교육행정 부분 ② 교육과정 부분
 ③ 교육(복지)시설 부분 ④ 재정 및 회계 부분
 ⑤ 기타 [] 부분

14. 회의시 귀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교육활동에 대해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 ① 강하게 주장하여 꼭 관철시킨다 ② 가급적 관철되도록 노력한다
 ③ 견해만 피력하고 만다 ④ 별로 관심 없다

1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나 교육 등 바람직한 학교활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신 적이 있습니까?(교원위원의 담당 고유업무 제외)

- ① 매우 많이 상정했다(5건 이상) -----② 상정한 적이 약간 있다(1~4건)
-----③ 상정한 적 없다 -----④ 별로 관심 없다

16. 귀하께서 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바람직한 의견이 있다면 회의 때 그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까?

- ① 다음회의에 반드시 개진하겠다 -----② 비슷한 안건이 있을 때 개진하겠다
-----③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다 -----③ 잘 모르겠다

17. 회의에 상정된 어떤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관련자료를 찾아보는 등 이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모든 안건에 대해 연구한다 -----②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③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다 -----④ 연구한 적이 없다

18. 귀하께서 평소 느꼈던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에게 건의하거나 의논하시겠습니까?

-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건의하겠다 -----② 운영위원장과 사전 의논하겠다
-----③ 교장과 사전 의논하겠다 -----④ 자식의 담당교사와 의논하겠다
-----⑤ 기타 []

19. 단위학교 별로 학교의 자율적 책임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나 교육관계자들의 의식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학교 자율적 책임운영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① 충분히 가능하다 -----② 약간 가능하다
-----③ 가능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0. 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활성화되었다 -----② 조금 활성화되었다
-----③ 활성화되지 않았다 -----④ 잘 모르겠다

21.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 20번에서 ①과 ②를 선택한 분만 응답)

- ① 법규 등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② 운영위원들의 적극성이 있어서
-----③ 일반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지원 -----④ 교장의 적극성이 있어서
-----⑤ 기타 []

22.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 20번에서 ③과 ④를 선택한 분만 응답)

- ① 법규 등 제도상의 경직성 -----②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및 의식 부족
-----③ 일반 교사의 인식 부족 -----④ 일반 학부모의 인식 부족
-----⑤ 교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운영 미숙 -----⑥ 위원들 간에 협조체제 부족
-----⑦ 기타 []

2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① 교장 -----② 학교운영위원들
-----③ 일반교사들 -----④ 일반 학부모들
-----⑤ 지역사회 -----⑥ 기타 []



24.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운영위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또는 지식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교육과정 등 교육의 전문성 -----② 회계 및 행정의 전문성
-----③ 청소년 문제 전문성 -----④ 학생 진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
-----⑤ 위원들 간의 협조체제 -----⑥ 기타 []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위원은 어떤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학교의 재정에 도움이 될 재력가 -----② 전직 교원 등 교육 전문가
-----③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 -----④ 청소년 선도 등 사회 사업가
-----⑤ 동창회를 대표하는 인사 -----⑥ 기타 []

26.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장은 어떤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교육 전문가 -----②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
 -----③ 통솔력이 뛰어난 인사 -----④ 개혁적인 인사
 -----⑤ 기타 []

27.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현행대로 -----② 자문기구
 -----③ 의결기구 -----④ 사안에 따라 심의·자문기구
 -----⑤ 기타 []

28.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법규 등 제도의 개선 -----② 기능의 변화(심의기구 → 의결기구)
 -----③ 위원들의 적극성 및 교육 전문성 향상
 -----④ 학교장의 의식변화 -----⑤ 위원들의 의식변화
 -----⑥ 일반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식변화 -----⑦ 기타 []

아래는 귀하의 기초자료입니다

29.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0.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1.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32. 소속된 학교의 소재지는?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33. 소속된 학교의 급별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34. 위원 자격은?

-----① 학부모위원 -----② 교원위원 -----③ 지역사회위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봉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